

- 환영:**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Home!
- 구약성경필사:** 내년 창립 110주년 기념사역 구약성경 필사
- 대강절기:** 다음 주일(12/3)부터 교회력의 시작이며,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대강절(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다음주일 성찬 보좌: 민예인 전도사 송의섭 장로 최인택 장로
- 2023년 선교후원:** 올 해에도 교회, 증거사역부, 남녀선교회, 속회, 개인지정 선교후원 등을 통해서 연회, 한인코코스, 장학사역, 선교/자선기관, 개척/미자립교회, 국내외 선교지, 지역교회/기관 등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수요 선교세미나 넷째시간:** 오는 수요일(29일) 오전10시, 강사: 박다니엘 선교사(카자흐스탄, 신창비전외국인교회), 주제: 선교사역의 실제 / 남선교회, 예배사역부 주관 및 점심준비 /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남녀선교회 정기총회:** 오늘 친교 후 / 남선교회; 소망회실, 1여선교회; 회의실, 2여선교회: 본당 찬양대석 / 내용: 23년 사업 및 재정보고, 24년 회장 선출, 기타 안건 등
- 교인총회 및 4분기 임원회:** 12월17일 주일 낮12시 인도: 김선희 감리사 / 각 위원회와 기관 보고서를 12월 첫주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 4분기 정기임원회: 12월3일 주일 친교 후
- 23년 새가족환영회(새가족부장 광송자 권사):** 12월 10일 주일 친교시간 친교실
- 속회모임 안내:** 주향한속 28일(화), 감사속 30일(목), 샬롬속 30일(목) / 속회 리더(속장, 인도자)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토요아침예배:** 12월 2일 오전 7시30분 (요한복음 묵상)
- 주중 특별모임:** 북클럽 (격주 토 오전8시, 2층 도서실) / 장구팀 (매주 금 오전10시, 2층) / 미술반 (매주일 친교후 2층)
- 주일학교:** 주일학교 예배는 오전10시 연합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친교 후 2층에서 성경공부를 진행합니다.
- 청년부:** 예배 후에 청년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합니다.
- 주일친교:** 오늘: 황경숙 권사 / 다음 주일: 청년부 / 친교로 섬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뒷정리도 부탁드립니다.
- 교우소식:** 연약하신 교우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건강회복: 이종혁 권사, 주영옥 권사, 최정연 권사 / 출타: 강비비안 권사(손자결혼식)

2023년 표어와 목표

표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 목표: 한 영혼 전도하기

2023년 기도제목과 성구

“한사람이 한사람 전도하여 성전의 빈자리를 채우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1:2)

신앙생활의 핵심가치

-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Worship)
 -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육공동체 (Next Generation)
 -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공동체 (Evangelism)
 - 사랑의 나눔이 있는 건강한 소그룹공동체 (Fellowship)
 -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제자공동체 (Discipleship)
 -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는 나눔공동체 (Service)
- 1905년에 태동하고 1914년에 창립하여 한 세기를 뛰어넘는 역사를 간직한 오클랜드교회는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을 위해 헌신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세상과 이웃을 품는 사랑을 간직한 자랑스러운 한인 이민교회입니다.

모임	시간	Oakland Sunday School	
주일예배	오전10시(대면/영상)	Children	[Worship] Sun 10am
수요찬양예배	오전10시(대면/영상)		[Bible Study] Sun 11am
토요아침예배	오전7시반(대면/영상)	Youth	[Gathering] After Worship
주일아침말씀방	-	Young Adults	
주일중보기도모임	-		

[오클랜드 한국학교 Korean School] okschool.org / 개강 8월19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정현섭
[Lead Pastor] Hyun Jung
hsjungusa@hotmail.com
- [전도사] 민예인
- [행정간사] 김하영
- [지휘자] 최희숙
- [반주자] 공은선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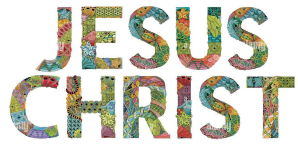


[산호세금식기도원 입구에 세워진 나무십자가]

Oakland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737 E 17 Street, Oakland, CA 94606
 (510)451-9076 www.newokumc.org

The Church overflowing with Grace and Peace



주 일 예 배

2023년 11월 26일

대면 및 라이브영상예배

인도 정현섭 목사 오전 10시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경배와 찬양 Worship Praise / 민예인 전도사

신 앙 고 백 Confession / 사도신경

찬 송 Hymn /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

회 중 기 도 Prayer / 조종애 선교사

찬양대 특송 Choir Anthem / "예수는 나의 힘이요"

말 씬 봉 독 Bible Reading / 예레미야애가 3장 19~23절

설 교 Sermon / 정현섭 목사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새가족 환영과 알림 Announcement /

❖ 봉헌 및 찬송 Offering, Hymn /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 축 도 Benediction /

❖ 이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11월 예배섬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일	주일회중기도	주중예배	11/12월 예배섬김
5	담임목사	수요오전예배	[안내위원]
12	정지선 장로	오전10시	곽송자 권사
19	황원규 권사 한상현 학생	*****	강비비안 권사
26	추수감사주일	토요일아침예배	[봉헌위원]
	조종애 선교사	오전7시30분	강순자 권사

[수요/토요일예배: 대면 및 라이브영상예배]

수요오전(11/29) 오전10시 / 토요일아침(12/2) 오전7시30분

Welcome!

우리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 환영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함께 교우들과 더불어 애찬을 나누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내를 따라 목양실을 방문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방 문 자	엄희 집사님	한국	엄영옥 권사
	제임스 정 성도님		정지선 장로
	김광자 성도님	한국	수지 자매

향기로운 예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11월19일/합계: \$17,150.00]

[십일조] 권헌일 김윤자 이향미 장유익 한성수 / [감사] 윤숙자

[주정/월정/주일헌금] 권헌일 박태순 전병련 정신애 정지선 정현섭
황신례 / [속회선교헌금] 믿음/사랑속 와보라속 온유속

[추수감사헌금 \$13,500] 강비비안 강석훈 강일성 공은선 곽태길
권헌일 김국희 김단진 김순찬 김은자 김정필 김충식 김태원
남승연 무명 민예인 박상근 박혜숙 배현의 손동준 손수락 손옥순
송의섭 오금희 유선미 윤경섭 윤행자 이강은 이선희 이성분
이옥배 이종혁 이학주 이향미 전병련 전상숙 전선재 정기호
정신애 정지선 정지현 정현섭 조길호/종애 최금열 최인택 한성수
한연우 홍승일 황신례 황원규

지난 주일/주중예배 참석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행2:46)	
주일대면예배	77명	수요/토요일예배	- /14명

속 회	속장/인도자	모임보고 / 모임안내	선교후원
믿음 사랑속	윤숙자/오금희	[보고] 11/17/금/교회(신마사)/5명	나눔의동산 파라과이1
감사	이문자/황원규	[안내] 11/30/목/3시/황원규 권사택	나눔의동산
샬롬	정정자/정지선	[안내] 11/30/목/12시/김충식 집사택	예수사랑
와보라	손성리/손수락	[보고] 10/27/금/교회/5명	멕시코
온유	송재현/곽태길	[보고] 11/17/금/장유익 권사택/11명	파라과이2
기쁨	양경혜/최인택	[보고] 8/25/금/최인택 장로택/4명	-
주향한	현순정/이종혁	[안내] 11/28/화/6시/현수남 권사택	-
청장년 청년	정지현/민예인	[보고] 9/16/토/교회/11명	기아대책

Good News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곤혹스러운 감사절기의 말씀준비

추수감사절을 지나자마자 묵상해야 할 말씀이 예레미야애가라는 것이 곤혹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주님의 계획과 뜻이라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가를 통해서도 다시 소망과 감사의 줄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의 별명이 [감사 목사님]이었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예배 때가 되면 언제나 이렇게 개회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번은 아주 나쁜 날씨의 주일을 맞았습니다. 눈보라가 치고 길은 얼음판이 되어 운전할 수가 없을 정도여서 주일 예배에 겨우 2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 전에 교인들이 농담 삼아 말하기를 '아마 오늘은 개회기도 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감사가 없을 것'이라구요. 그런데 이 날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과 같은 나쁜 날씨의 주일을 1년에 겨우 한 두 번 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보내었고, 또 엿그제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땅에 첫 발걸음 한 청교도들이 초기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고백한 7가지 감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째, 180톤 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66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셋째, 항해 중 두 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한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일곱째, 고통스러운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

- 11월25일 토요일아침예배(예레미야애가 1장) 묵상 중에서

[기쁨의 언덕으로]	27일(월) 예레미야애가 2장	28일(화) 예레미야애가 3장
매일성경통독과 묵상	29일(수) 예레미야애가 4장	30일(목) 예레미야애가 5장
11월: 예레미야	12/1일(금) 요한복음 1장	12/2(토) 요한복음 2장